

리튬득 수집, 정리



백두산 산수, 지명 전설

신기한 여우모자



연변인민출판사

백두산 산수, 지명 전설

신기한 여우모자

리룡득 수집, 정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长白山山水·地名传说 / 李龙得著. —延吉: 延边
人民出版社, 2005. 12
ISBN 7-80698-571-9

I. 长... II. 李... III. 朝鲜族-民间故事-作品
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36579号

长白山山水·地名传说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吉大明彩色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4插图 印张: 10.125 字数: 23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71-9 / I68 (民文)

版次: 2005年12月第1版

2005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2000册

定价: 2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저자력력:

리룡득, 1940년 2월 21일
길림성 안도현 량병향 보광
촌 출생.

연변대학 문화예술전문통신
학부 졸업.

중국소수민족작가학회 회원,

중국민간문예가협회 회원,

중국민속학회 회원, 중국국

재명인협회 회원, 중국당대

민간문예가협회 회원,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고문.

저서: 동화집 《금들이네 이
이야기》, 동물동화집 《꽃사
슴》, 민간이야기집 《불로
초》 그외 다수.



사전해석에 따르면 전설이란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 또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실설(实说)처럼 믿어내려온 설(说)이라고 한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처럼 믿어오게 하는 마력은 무엇인가? 바로 전설의 핵(核)이다. 그 핵이란 무엇인가? 바로 역사의 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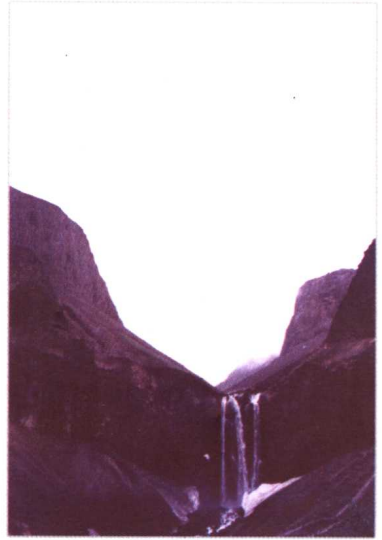
역사가들은 전설을 외면한다. 정사(正史)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야사(野史)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사(正史)란 위인들의 전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위정자들에 의해 다듬어진 허구이기도 하다. 반대로 전설은 야사(野史)이며 삶을 추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대대손손 전해온 진실인 것이다. 하기에 만약 정사만 있고 야사가 없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해골을 방불케 할 것이다. 야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우리는 선인들의 참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리릉득 선생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손색이 없다.



천문봉



백두산폭포



백두산천지

돌이끼



네 평지



장기봉



소천지



까마귀석



호유견석



약수천



옥녀늪

전설의 주인공 리룡득

-머리말을 대신하여

류연산

리룡득선생의 글은 대체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적>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진감래라고 그후 그들은 잘살았다>로 결속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선한자는 복을 받고 악한자는 벌을 받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사상으로 관통되어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의 공통된 구조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라도 리룡득선생의 전설과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들은 선생 자신의 화신(化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수하고 애증이 분명하다. 지난 4월 13일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선생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리룡득선생은 전설속의 인물 그 자체라는감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다.

그는 안도현 량병진 보광촌에서 태어나 겨우 초중을 졸

업하고 고향에서 농사일에 종사해왔다. 가세가 빈한하여 승학의 꿈을 일찍 접어야 했던 그한테 20대에 현문화관 관원으로 되는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연 봉록(俸祿)을 포기하고 귀향을 선택했다. 그 바람에 안해 서옥순(徐玉順, 1940년생)마저 현가무단의 적(籍)을 버리고 농사꾼이 되는 막다른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농촌이 도시 못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년사시절 땅과 씨름해야 하는 농사일에 육체를 혹사하는 일이 고역이 아닐수는 없었을것이다. 그랬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험한 인생의 외길을 고집하게 한 장본인은 전설이었다.

어릴 때 할머니의 옛말을 자장가처럼 들어오며 자란 그는 옛말의 현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여름이면 마을의 어느 마당에 피워놓은 모기불주위에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하는 마을로인들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모기가 무는것도 몰랐고 겨울이면 은돌우의 화로불을 되작이는 로인들의 타령소리에 겨울밤이 지새는줄도 몰랐었다. 그는 부지런히 적었고 다시 꼼꼼히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 내놓은 전설은 무려 1천여편, 그가 정리한 노래는 수백여수, 그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겠다.

사전해석에 따르면 전설이란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 또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실설(實說)처럼 믿어내려온 설(說)이라고 한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처럼 믿어오게 하는 마력은 무엇인가? 바로 전설의 핵(核)이다. 그 핵이란 무엇인가? 바로 역사의 진실이다.

력사가들은 전설을 외면한다. 정사(正史)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야사(野史)라는것이 리유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사(正史)란 위인들의 전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위정자들에 의해 다듬어진 허구이기도하다. 반대로 전설은 야사(野史)이며 삶을 추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대대손손 전해온 진실인것이다. 하기에 만약 정사만 있고 야사가 없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해골을 방불케 할것이다. 야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우리는 선인들의 참모습을 만나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리룡득선생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손색이 없다. 그의 전설속 주인공의 생활의 애환속에서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터득할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회로애락속에서 조상들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꾀꾀하게 살아가는 불굴의 정신에서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배울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 삶의 의미, 삶의 태도를 가진 리룡득선생이었으므로 그는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전설에 평생을 바칠수 있었고 우리 민족 민간문학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쌓을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나서 한마디 했다.

《조상한테 감사할뿐이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입에 발린 가식으로 받아들여졌을 이 말을 리룡득선생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나는 조상에 대한

4 / 신기한 여우모자

그의 무한한 존경심을 읽고 감동했다.

이 책에 수록된 전설들은 리룡득선생이 평생을 두고 수집정리한, 백두산에 얽힌 우리의 조상들의 주옥같은 이야기들이다.

2005년 9월 5일

차 례

- 칠선녀와 마디풀 / 1
천지 / 4
견우교 / 10
천지에 얽힌 피어린 신화 / 14
폭포(1) / 20
폭포(2) / 25
천하 / 30
약수 / 33
특명봉 / 42
백운봉(1) / 47
백운봉(2) / 51
백두산의 크고작은 못의 형성 / 59
와호봉 / 62
백두산천지의 세 산봉우리 / 71
망부석 / 75
초대봉 / 82
말안장산 / 88
봉황새골짜기 / 92
신선의 동굴 / 103

2 / 신기한 여우모자

백두산전설 / 109

신기한 동굴 / 116

또 하나의 열여섯 기봉의 전설 / 120

옥장천(1) / 123

옥장천(2) / 130

제운봉의 화장대 / 132

금선천 / 138

호유견석 / 146

까마귀석 / 149

웅취봉 / 153

장기봉 / 156

비녀봉 / 161

연자산 / 167

특제동 / 172

소천지 / 175

옥녀늪 / 179

은천의 유래 / 183

은천수 / 186

약수천 / 192

여의주골 / 194

돛자리골 / 200

인삼골 / 207

대통골 / 210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원천에 깃든 전설 / 217

왕늪 / 222
작은 왕늪 / 225
원지전설 / 228
이도백하 / 233
괭이봉 / 239
메밀봉 / 242
박과부골 / 247
명풍수골 / 260
유부털녀골 / 273
족친골 / 278
돌닭알 / 285
황송포 / 297
신기한 여우모자 / 302
재터 / 310
아기봉 / 312
저자간력 / 315

칠선녀와 마디풀

백두산 곳곳마다에는 해마다 꽃피고 열매맺는 풀이 무려 1,200여종이나 있다. 그중 한초, 마관초, 갈풀을 포함한 여러가지 풀들의 줄기와 잎끝마다에는 그 꺾은 자리가 완연하다.

멀고먼 옛날 어느해 여름이다.

하늘나라 옥황궁의 칠선녀가 하루는 천궁의 동쪽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발아래 지상국을 내려다보았는데 이 나라 동북편에 폭포소리 요란하고 기암절벽이 웅위롭게 들어앉은 련못에서 무수한 은룡, 금룡이 휘황찬란한 광채를 눈부시게 내뿜고있는것을 보았다. <오, 저기는 필시 인간의 지상락원일거다.> 이렇게 감탄한 일곱 선녀는 마침내 길일을 택한 뒤 칠색무지개를 잡아타고 훨훨 날아 지상국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잠간새 천지기슥에 내려와보니 과연 이곳은 천상에서는 볼수 없었던 명실상부의 명승지였다. 그 장엄한 기상도 가관이려니와 천지를 웅위해 의중게 둘러앉은 열여섯개 기봉